

제51회 Tex+Fa CEO 조찬포럼 성료

일본 경영전문가 서울대 김현철 교수-업계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 전달

뉴스일자: 2016년10월14일 11시19분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조수연 기자]한국패션협회(원대연 회장)는 지난 13일 논현동 임페리얼펠리스 호텔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51회 Tex+Fa CEO 조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섬유패션업계 경영인 및 디자이너,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경영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저성장시대, 섬유패션기업들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패션협회 원대연회장은 "일본의 저성장 고령화시대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극복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 또한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한 수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일본은 암울한 상황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있었고, 우리 또한 그동안 간과해 왔던 현실을 통해 더 확고한 미래의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섬유·패션업계에 처해진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연자인 김현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닥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소비절벽을 맞아 그 거품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섬유패션업계 리더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와 엄청난 변혁기와 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비정상(abnormal)이란 얘기"라고 강조하며,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모두 다시 과거 호황 국면이 재현될 것으로 낙관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사회 전반에 낀 거품을 '옷값'을 예로 풀어나갔다. "K뷰티는 이미 앞서 있고, K패션도 그 뒤를 빠르게 쫓아가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의류구입만은 하고 싶지 않다"라며 "한국은 복잡한 유통 구조와 무리한 마케팅을 거치면서 옷값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고 전 세계에서 옷값이 비싼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저가격을 원한다면 원가부터 재조정해 그동안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괴하고, 근본적인 구조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긴자에 예약을 안 받고 줄을 서서 순서대로 입장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을 소개하며, 최고의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평균 20만원 정도의 가치의 요리가 5만원 밖에 되지 않는 가격과, 하루 평균 3.5이상의 회전율이 말해주고 있는 스탠딩 테이블식사 사례를 통해 원가혁명을 불러 일으킨 '가치혁신'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 소비자들은 싸면서 좋은 것을 찾기 마련이며, 화려한 사치는 사라지고 저렴한 사치를 찾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원가혁명과 가치혁명, 강력한 영업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 큰 지각변동에 대비해 시장의 양극화 속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명확한 포지션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을 거울삼아 미래를 대비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이 뉴스클리핑은 <http://okfashion.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참달기